

오래된 찻잔, 차 맛도 일품

'청대 차도자 명품전' 연 김영효씨 유물도자 시음회 마련



자사호 수집가 김영효씨(사진 맨 왼쪽)가 7월 20일 서울 방배동 갤러리 '루브'에서 '오래된 다도구로 마셔보는 보이차 시음회'를 진행하고 있다.

라진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며 신기해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면 장식장에 두고 감상할 뿐 실제 차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차계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날 시음회는 색다른 풍경임에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을까? "6-7년 전부터 국내에도 보이차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다 가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보이차와 자사호다보니 '속지 않고 구입하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왕도는 없습니다. 자신의 안목을 키우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안목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품, 명품 차도구를 많이 감상하고 직접 차를 우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초 차와 인연을 맺게 된 김씨는 그간 보이차와 자사호의 세계에 빠져 보이

국제음료박람회 조직위 출범 12월 8~11일 부산 벡스코서

차와 커피, 와인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음료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국제음료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손해식,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 이사장)는 7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오는 12월 8~11일 부산 벡스코에서 '2006 국제음료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음료학회(회장 박병권)와 전시컨벤션업체 다인 커뮤니케이션(대표 구성근)이 주최한다. 그동안 차와 와인 등 개별 음료와 관련된 박람회 개최는 적었지만 종합적인 음료 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15개국 이상의 음료 전문가 및 바이어 300여명과 국내 음료 관계자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식 위원장은 "국제음료박람회는 국내 음료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국제음료박람회에 참가할 음료관련업체 모집하고 있다. www.ibexpo.net (051)744-3715

"이 자사호들은 청대(淸代) 자사작가 해명신(1598~1684)의 작품입니다. '이슬 한 방울 떨어지는 듯한' 일적호(一滴壺)와 물을 끓일 수도 있을 정도로 큰 대호(大壺)를 함께 감상해보시죠. 여기 보이는 찻잔은 푸경까지 갖춰진 청대 나비문양잔입니다. 이제 이 다구들로 차를 우려 마셔볼까요?"

7월 20일, '청대 차도자 명품전'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갤러리 '루브'에서는 '오래된 다도구로 마셔보는 보이차 시음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와 강연을 마련한 자사호 수집가 김영효씨가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된 찻잔을 꺼내 참가자들에게 건네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어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받아요." "이렇게 귀한 걸 만져도 될지 모르겠네요."

주위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는 다관에 차를 우려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동안 차의 향을 품은 다호로 차를 우려면 차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맛본 차는 1990년대 국내에 수입된 천량차. 40년은 족히 묵은 차다. 우려진 차는 수백 만원을 호가하는 '유물 찻잔'에 따라진다. 참가자들은 조심스레 찻잔을 들고 차를 한 모금 음미한다. 조영숙(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씨는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 오래된 차호에 차를 우려마시니 기분이 특별하다"며 "차를 마신지는 오래 됐는데 차도구에 따라 맛이 달

수백만원대 유물찻잔에 40년 묵은 명품차 시음·차 주제 전시회 계획

차와 차도구 수집에 나섰다.

"의식차(儀式茶)의 궁극이 가루차라면, 반차(飯茶) 즉 생활차의 궁극은 보이차라 생각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피로를 풀고 소화능력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 보이차는 더 없이 적합한 음료입니다."

현재 그가 수집한 작품은 청대 황실 다도구를 비롯한 300여 점. 인터넷 카페(cafe.naver.com/oldpue)와 '비보다원'이란 차회를 운영하며 자신이 수집한 차도구를 이용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집한 차도구를 차회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는데만 사용했습니다. 전시를 할 기회나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더 많은 차인들이 차도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만간 불가(佛家)의 중요한 공양물인 향과 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분향차전(焚香煮茶展)'도 선보일 것입니다."

"세계 차 시장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잃



청대 자사작가 해명신의 일적호(가운데 동전 옆)와 대호(오른쪽).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자사작품으로 '갈덕화'라는 낙관이 선명하다.



청대 자사호를 설명하고 있는 김영효씨.

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안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씨는 "차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출장 강정에 응할 용의가 있고, 시찰에서도 차 강의를 열고 싶다"며 관심있는 차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31)247-9681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종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3. 신비의 음료

② 커피의 수난과 승리

커피가 발견된 이후 몇 세기 동안 커피는 일반인들에게는 단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용에 불과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다. 다만 특권 계층인 철학자와 수학자들이 밤새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마신 지적 음료이자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으며, 이슬람 사원에서만 향유된 값비싼 이용품이었다.

이런 커피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것은 1517년 메카(Mecca,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도시)의 카이르 베이라는 젊은 총독에 의해서다. 그는 커피 애호가와 반대론자들이 며칠간 설전을 벌이게 해 커피 음용을 금지하기 위한 종교적

를 입은 사람들이 체스를 두며 마시는 우유'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으며 새로운 풍속이 만들어졌다.

상인들에 의해 마르세유에 유입된 커피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마실 수 있는 약으로 불려왔다. 의사들은 커피에 유해한 성분이 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의사들 사이에서 약리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르세유에는 노래를 부르며 집집마다 커피를 팔러 다니는 외국인 행상이 있었으나 대중적이지 못했다. 이는 커피에 대한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동안 아직도 '커피는 약'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춧대와 거울, 대리석 탁자로 꾸민 프랑시스의 새로운 커피하우스인 '카페 프루코프'가 탄생한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한 기호식품으로

커피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애호가들 더욱 증가 마르세유 비엔나 진입하며 유럽으로 퍼져

논쟁을 벌였다. 그 논쟁의 대부분은 "커피의 검은색은 나무의 죽은 부분으로 숯과 같아하여 죄인의 음식으로 여겼고", "의식을 2배로 또렷하게 한다하여 악마로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격렬한 폭동으로 커피 하우스가 불에 타 사람이 죽기도 했다.



파리의 커피행상(M. 앙겔 브레르트, 1735). 프랑스에서는 17세기까지 커피가 대중화되지 않았다.

서 커피의 대중화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비엔나시 커피 음용을 유행시킨 것은 전제왕이었다. 이슬람 민족이 1683년 비엔나까지 진입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후 낙타 수신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격렬한 폭동으로 커피 하우스가 불에 타 사람이 죽기도 했다.

결국 총독은 이것을 계기로 커피 금지령을 내린다. 그러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커피에 매료된 사람들은 슬금슬금 커피를 마셨다. 금지령은 아무런 효과 없이 철회되었다.

이 소식은 메카를 중심으로 상인과 종교인들에 의하여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으며, 이슬람지역의 간이식당에는 와인 대신 커피를 판매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에 대한 선교차원으로 커피의 음용을 권하였고,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옛 이름에서는 와인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1554년 터키의 골든혼의 변화기에 메테비르판(meketebirfan) 즉 '문화 학교'라는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커피는 '소매가 넓은 흰색 블라우스

에 태우기도 하였다. 콜쉬츠(전 정 중에 비엔나를 위해 공을 세웠다)의 요청으로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커피는 비엔나 사람들 기호에 맞추어 지기 시작했다.

인전장에 달라붙는 커피 찌꺼기를 여과기에 걸러내고 꿀과 우유를 가미해 검은색을 연하게 하고 맛을 부드럽게 한 비엔나커피는 대중에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다. 투르크와 의 전쟁동안 포도밭이 파괴되어 와인 생산할 수 없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커피 향기는 수난 속에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마르세유와 비엔나를 정복하며 유럽으로 퍼지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문화연구소 연구원)

삼상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찬란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양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경 보급!!

법 요 집

기 초 교 리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겉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귀의 · 전양행니다 · 반야심경 · 인정 · 청법가 · 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후서원 · 선회가 · 기타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범의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사성제 16. 사성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	---	---	--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겉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